

본당 소식

2024년 7월 생활말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시편 23.1)”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 한인성당 방문

- 일시: 2024년 09월 22일(주일), 11시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님께서 로마 사도좌 방문(Ad limina)을 마치고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하셔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십니다.

♣ 견진성사 대상자(각 구역별)

-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내 견진성사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8월 25일(주일)까지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견진 교리 일정

- 매주 9시 30분, 오라토리오

9월 1일(첫째 주)	9월 8일(둘째 주)	9월 15일(셋째 주)	9월 22일(견진일)
성경이란 무엇인가	7성사와 성령 칠은	신앙생활(기도)	예식 연습

♣ 본당 주임 휴가 일정(8월 19일-30일)

- 8월 25일 본당 주일 미사가 없습니다. 현지 본당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민재희 세바스티안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96.95€ • 교무금 €

전례 성가

입당 : 50 (주님은 나의 목자)

봉헌 : 218 (주여 당신 종이)

성체 : 176 (믿음 사랑 소망), 178 (성체 앞에)

파견 :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전례 봉사

이번 주일(21일)	다음 주일(28일)
1독서: 윤다혜 아멜리아	1독서: 윤선재 가우디아
2독서: 민재희 세바스티안	2독서: 김우진 크리스티나
복 사:	복 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7월 21일 (녹)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주님 - 은 나의 목 - 자 아쉬울 것 없 - 어 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 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 리다. ☉

제1독서 (예레미야서 23,1-6)

1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 떼를 파멸시키고 흩어 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2 —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 신다. — 너희는 내 양 떼를 흩어 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3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 성할 것이다. 4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 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의
를 이루리라.
6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2,13-18)

형제 여러분, 13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15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
시고, 16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17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
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18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
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6,30-34)

그때에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
다.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
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3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그 안에 머물러 기도하며, 새로운 힘
을 얻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분단의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 온 저희 겨례를 보살펴 주시
어,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평화로이 대화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을 보살펴 주시어,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보여 주시고, 농민 주일을 지내는 교회가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어, 우리 농산물을 가까이하고, 사
회와 자연의 환경과 생태를 돌보며 생명 수호에 앞장서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
소서.

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